나라사랑

든든한 보훈 | 국가보훈처

narasarang.kr

2021년 9월 1일 수요일 (월간) 국가보훈처 ☎ 1577-0606

“대한민국,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 꿈 꾼다”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

문 대통령 “세계 경제 재건과 평화질서에 이바지할 것”

“광복의 감격과 그날의 희망은 지금도 우리 미래” 저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독립과 자유, 인간다운 삶을 향한 꿈이 해방을 가져왔다”면서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을 꿈꾼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사)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왔고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축사 4~5면〉

이날 문 대통령은 경축사를 시작하면서 “오늘 마침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에 도착한다”며 “독립영웅들을 조국으로 모시는 일을 국가와 후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영광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의 감격과 그날의 희망은 지금도 우리의 미래”라며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역사와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군사강국의 자부심, 그리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론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이웃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우리에게 분단은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이라며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동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별세 78년 만에 대전현충원 안장

장군의 귀환

“고난의 역사 되풀이하지 않게 강하고 존중받는 나라 만들자”


지난달 15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봉환식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이끈 독립전쟁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고국 땅에서 영면했다. 〈관련기사 2~3면〉

지난달 15일 광복절 카자흐스탄에서 봉환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18일 오전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 안장됐다. 홍범도 장군이 별세한 지 78년 만이다.

이날 안장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유해 봉환을 위해 카자흐스탄을 찾았던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등 특사단, 정당 대표, 우원식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대한고려인협회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안장식에서 “홍범도 장군은 우리 민족의 영웅이며 자부심”이라며 “장군의 귀환은 어려운 시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고 장군이 고향 흙에 흘린 눈물은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뜨거운 나라로 이끌어 줄 것”이라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승리와 희망의 역사”라며 “모두가 만든 승리는 일제 지배에 억압받던 삼천만 민족에게 강렬한 자존심과 자주독립의 희망을 심어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절치부심하여 보란 듯이 잘사는 나라,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닷새간의 추모 열기, 독립정신·국민통합의 시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이 남긴 것

한·카자흐 전략적 동반관계 현지묘역 관리 MOU 체결

안중근 의사 등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지속적으로 추진

장군의 귀환. 봉오동·청산리 대첩의 영웅 홍범도 장군(1868~1943)의 유해가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와 지난달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대통령 특별사절단 출발에서부터 안장식까지 닷새간 이어진 장군의 유해 봉환은 많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추모 열기 속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00주년을 맞은 봉오동 전투, 당시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독립운동의 영웅은 그렇게 서거 78년 만에 유해로 고국의 품에 안겼고, 이 기간 동안 그는 국민 모두에게 당시의 뜨거웠던 독립정신과 오늘의 국민통합이라는 과제를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영면에 들었다.

귀환에서부터 안장까지 매 순간 많은 화제를 남긴 홍범도 장군은 오늘을 사는 후손들에게도 다시 새겨야 할 많은 의미와 성과를 남겼다.

유해 봉환, 최고의 예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1994년부터 추진되어 난항을 거친 끝에 비로소 27년 만인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때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유해 봉환을 요청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양국은 봉오동 전승 100주년인 지난해 유해 봉환을 합의했으나 코로나19로 미뤄지다 이번 토카예프 대통령 국빈 방한을 계기로 유해 봉환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유해 봉환 과정은 국권 회복과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한 독립영웅을 잊지 않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한다는 보훈의 가치를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현지 묘역에서의 추모식에서부터 대전현충원 안장까지 최고의 예우와 엄숙한 절차 속에서 진행됐다. 14일 황기철 보훈처장 등 대통령 특사단은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공군 특별수송기로 장군의 유해를 모셨으며, 특별수송기가 우리 영공에 진입할 때는 공군 전투기 6대가 조국으로 귀환하는 장군을 호위했다.

장군이 남긴 양국 든든한 유산

홍범도 장군의 정신은 양국 땅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투쟁과 애국의 상징으로 더욱 깊게 새겨진다.

우선 카자흐스탄 현지의 장군 묘역은 현지 고려인들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한민족 정체성의 장소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지난달 1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는 보훈처와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주(州) 정부가 홍범도 장군 묘역의 보존·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계기로 한·카자흐스탄 양국의 우정은 더욱 깊어지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립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과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현지 고려인을 통해 양국의 우정은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유해 봉환을 주관했던 국가보훈처는 현안으로 남은 안중근 의사 유해를 비롯해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달 14일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홍범도 묘역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주요내빈이 함께 묵념을 하고 있다(위). 지난달 14일 홍범도 장군 추모식이 끝나고 홍범도 장군 유해가 운구용 차량에 실리고 있다(아래).



지난달 14일 현지 추모식이 끝나고 홍범도 장군 유해가 운구용 차량에 실려 크즐오르다 홍범도 거리와 문화회관 등을 거쳐 크즐오르다 주병원 영안실에 임시안치되는 모습.

홍범도 장군은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일제강점기 독립군을 이끌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영웅으로, 일본군에겐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던 홍범도 장군.

1868년 8월 27일 평범한 농민의 집안에서 태어난 장군은 1907년 함경도와 평안도 일대의 포수들을 중심으로 의병을 조직해 일본군과 여러 차례 전투를 치르며 대담무쌍한 활동을 벌였다.

1919년 3·1운동으로 항일의 열기가 높아지자 장군은 간도와 북간도로 무대를 옮겨 의병 출신과 간도, 노령의 동포들을 모아 대한독립군을 조직하고 국내진공작전을 펼쳤다.

장군은 1920년 6월 군무도독부와 국민회 독립군 부대와 연합해 중국 왕청(봉오동)에서 일본군 1개 대대를 섬멸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전투가 바로 한국 독립무장투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 가운데 하나인 봉오동 전투. 이어 10월에는 북로군정서 김좌진 장군 등과 함께 일본군을 공격해 대규모 승전을 거두는 청산리 대첩의 주역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1931년 만주사변 후 소련 정부의 한인강제이주정책에 의해 1937년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이주를 당해야 했다. 1938년 4월 유해가 묻힌 크즐오르다 도시구역으로 이주했고, 장군은 끝내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1943년 이역만리에서 별세했다.

정부는 1962년 고난의 역사 속 빛나는 투쟁을 벌인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으며, 이번에 유해 봉환과 함께 다시 최고훈격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대전현충원 안장 '백두산 호랑이' 조국에 잠들다





지난달 1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고 홍범도 장군 훈장 추서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위). 지난달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서 의장대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하관하고 있다(아래).





지난달 16일 국립대전현충원 홍범도 장군 국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참배하고 있다(위). 지난달 17일 국립대전현충원 국민분향소 벽면에는 시민들이 적어 놓은 감사 메모가 가득하다(아래).

닷새간의 감동 현장

 # 3인의 대통령 특사

정부는 봉오동·청산리 대첩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을 최대한 정중히 모시기 위해 대통령 특별사절단을 구성했다.

현지에서의 추모식과 유해 인수, 항공 봉송까지 책임질 특사단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단장으로 우원식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조진웅 영화배우가 동행했다.

특사단은 광복절 전날인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공군 특별수송기로 출발했고 7시간여의 비행 끝에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도착, 장군 묘역에서 진행되는 추모식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 현지의 엄숙한 추모식, 봉송

현지시각 8월 14일 오후 4시에 시작된 추모식은 크즐오르다 홍범도 장군의 묘역 앞에서 특사단,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 고려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특사단장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추모사를 통해 "병력과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고 거둔 '봉오동'과 '청산리'에서의 승리는 일제의 폭압에 억눌려있던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 되었고, 온 겨레의 희망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파묘와 유해 수습, 입관, 관포가 진행됐다. 제례는 오가이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 등 고려인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고려인식으로 진행했다.

 # 서울공항의 '올드 랭 사인'

장군을 모신 특별수송기는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한 후, 공군 전투기 6대의 엄호 비행을 받으며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공항으로 나가 대통령 특사단과 함께 귀환한 장군의 유해를 정중히 맞았다. 장군을 봉영하는 서울공항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불렀던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1921년 연해주 이주 후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홍범도 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 최고훈장,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토카예프 카심 조마르트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함께한 가운데 홍범도 장군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이번 추가 서훈은 기존 공적과 별개로 장군의 공적을 추가로 인정해 59년 만에 결정된 것이다.

 # 이젠 고국땅 동지들과 '안식'

18일 대전현충원. 일제강점기 독립군들이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며 즐겨 부르던 독립군가 연주 속에서 안장식이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조국을 떠나 만주로, 연해주로, 중앙아시아까지 흘러가야 했던 장군을 비롯한 고려인 동포들의 고난의 삶 속에는 근현대사에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온갖 역경이 고스란히 배어있다"는 대목에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홍범도 장군 훈장 추서식에서 토카예프 카심 조마르트 카자흐스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현지 홍범도 장군 묘역의 흙을 한국의 흙과 함께 허토하면서 '장군의 귀환'이 마무리됐다.

국민추모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18일 열린 안장식까지 장군을 모신 16, 17일 이틀간 국립대전현충원에 마련된 국민분향소에는 참배객 2,845명(차량 1,149대)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참배객은 태극기를 들고 와서 펼치거나, 분향소 앞에서 신발을 벗고 큰절을 하며 장군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15일부터 국가보훈처 누리집도 국민추모 기간을 운영, 온라인에서 장군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추모 공간(추모페이지)에는 2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모두 6만3,842회의 접속이 있었으며 7,071명이 감사와 추모의 글을 남기는 열기를 보였다.

감사와 추모의 글에는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환영합니다' '장군님의 귀환에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장군님의 숭고하고 고귀한 헌신에 감사하며 기억하겠습니다' 등의 소감들이 올라왔다.

“식민지 제3세계에서 시작해 ‘개도국 성공모델’ 완성”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요약)



광복 76주년을 맞은 오늘, 마침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에 도착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역사적인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대한 독립군 사령관이었으며, 뒷날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광복 직후인 1946년,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를 시작으로 오늘 홍범도 장군까지 애국지사 백마흔네 분의 유해가 고향산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독립 영웅들을 조국으로 모시는 일을 국가와 후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영광으로 여기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선열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주독립의 꿈을 잃지 않았고, 어디서든 삶의 터전을 일구며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강인한 의지가 후대에 이어져 지금도 국난극복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선열들과 독립유공자, 유가족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복의 감격과 그날의 희망은 지금도 우리의 미래입니다. 모두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꿈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들을 가르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전국 145만 명이었던 초·중·고 학생이 해방 후 불과 2년 만에 235만 명으로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뜨거운 교육열로 의무교육이 시작되었고, 우수한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국민들의 의지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경제·사회개발계획, 신경제계획과 IT산업 육성,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로 이어지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2017년 3만 불을 넘어선 1인당 GDP도 지난해 G7국가를 넘어섰습니다.

자주국방은 지난 100년간 우리의 절실한 꿈이었습니다. 육군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최고 수준의 K2전차, K9자주포, K21장갑차를 운용하는 ‘첨단 강군’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군이 버리고 간 경비정과 녹슨 전함으로 창설한 해군은 이지스함을 포함한 구축함 9척, 잠수함 19척 등 모두 150여 척의 함정을 운용하는 대양해군이 되었습니다.

1949년, 20대의 경비행기 밖에 갖추지 못했던 공군은 세계에서 8번째로 첨단 초음속전투기 KF-21을 자체 개발하고, 강력한 우주공군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합군사력 세계 6위에 오른 군사강국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우주 시대의 새로운 안보 환경에 대비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방위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잃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독립과 자유, 인간다운 삶을 향한 꿈이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6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개발도상국 중 최초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격상했습니다.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다시 꿈꿉니다.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고 싶은 꿈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꿈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왔습니다. 식민지와 제3세계 국가에서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성장 경험을 개도국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만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거센 도전에 맞서며 우리 국민이 가진 높은 공동체 의식의 힘을 보여주었고, 인류가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독립과 자유, 인간다운 삶 향한 꿈이 해방 가져와
우리 국민 높은 공동체의식 코로나 극복 모범될 것
품격 있는 선진국 출발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약자 배려하고 다름 인정해야 존경받는 선진국

우리에게는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강인한 ‘상생과 협력의 힘’이 있습니다. 식민지배의 굴욕과 차별, 폭력과 착취를 겪고서도 우리 선조들은 해방 공간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위기 앞에서는 더욱 뭉쳤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며 숱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켰습니다. 상생협력의 힘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회복하고, 함께 도약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두텁게 보상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늘리는데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확대하여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세계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서 선도국가로 나아갈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는 경제이며,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지난해까지 유니콘 기업이 15개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제2벤처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선 수주 세계 1위, 자동차 세계 5강,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에서도 선전하며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에 혁신과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심어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2025년까지 총 220조 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로드맵이자, 새로운 도약을 이룰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축으로 세웠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로 디지털과 그린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인력양성을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디지털과 그린 전환의 과정에서 뒤처지는 국민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해온 국가균형발전의 꿈은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이뤄질 것입니다. 지방 재정 분권을 더욱 강화하고, ‘동남권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 협력모델의 성공과 확산을 통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야 합니다.

경기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경제회복의 혜택을 모두에게 나누어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꿈을 반드시 체감할 수 있는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품격있는 선진국이 되는 첫 출발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입니다.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관용의 사회로 한 발 더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의 처지와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품격 있는 나라,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생협력을 이끄는 가교 국가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을 의미합니다. 개방과 협력으로 키운 우리의 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재건과 평화질서에 적극

“남북 공존 동아시아 번영 위한 ‘한반도 모델’ 만들어야”

이바지할 것입니다.

특히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우리의 성장 경험과 한류 문화, K-방역을 통해 쌓은 소프트파워를 토대로 새로운 시대의 가치와 질서 형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첫째, ‘백신 허브 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 한미 백신 파트너십 등에 기반해 인류 공동의 감염병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입니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의 역할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기술 격차를 더욱 벌려 글로벌 선도기지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선언’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실천해 온 우리 국민들과,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세울 수 있었던 이정표입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지만 그렇다고 부담으로만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대전환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친환경차와 배터리, 수소경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왔고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태양광,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의 폭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전환을 돕고, 우리의 ‘그린뉴딜’ 경험과 녹색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 이후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분업과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이 함께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할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이웃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 기대합니다.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1년 전인 1990년, 동독과 서독은 45년의 분단을 끝내고 통일을 이뤘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신의와 선의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았고, 보편주의, 다원주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독일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극복하며, 세계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을 이끌어가는 EU의 선도국이 되었습니다.

자유·평화 향한 강인한 의지와 공동체 위한 헌신,
연대와 협력의 유산 물려주신 선열에 존경과 감사

지치지 않고 한반도 평화 꿈꾸면 우리의 상상력은
한반도 넘어 유라시아로…희망과 번영 시작될 것

우리에게 분단은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입니다. 우리도 이 장벽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연결될 때 누릴 수 있는 이익은 막대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를 꿈꾼다면, 우리의 상상력은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를 넘나들 것입니다.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면, 강고한 장벽은 마침내 허물어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새로운 희망과 번영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과 꿈을 간직했습니다. 보란 듯이 발전한 나라, 나와 이웃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차례입니다. 그 꿈을 향해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유와 평화를 향한 강인한 의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 연대와 협력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선열들께 마음을 다해 존경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실시 9.24.~10.5.(12일간)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보훈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통계조사원이 방문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대상**: 보훈대상자 중 표본추출 인원 11,000명
◯ **조사방법**: 통계청 조사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
◯ **조사내용**: 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실태에 대한 개인조사와 가구현황 조사
- 개인조사: 문화·여가, 사회참여, 가족관계, 경제활동, 노후 등
- 가구조사: 가구일반, 주거, 소득 및 지출, 자산·부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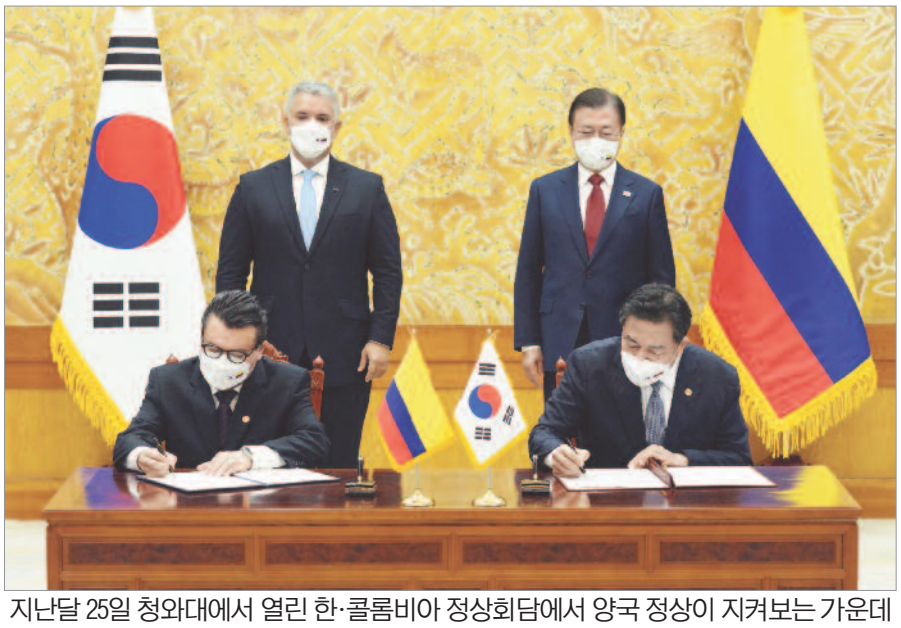
※ 개인의 응답내용은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목적으로만 이용됨

◯ **조사기관**: 국가보훈처·통계청
◯ **조사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정책총괄팀 044-202-5391~2

Q. 조사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A.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보훈대상자 중 유형별 등록자 수와 거주지역(서울, 부산 등)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계학적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Q. 본인이 원할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당사자가 희망하더라도 조사대상에 추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사는 통계학적 방법에 의해 선정된 대상자로 한정되는 조사로서, 기존의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선별하여 지원하기 위한 “개인별 생활수준조사”와는 다른 통계조사입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사일정 및 조사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번 조사·분석을 위해서만 사용 후 폐기됩니다.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콜롬비아 주한대사가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지난달 25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콜롬비아 참전용사 길예르모 로드리게스 구즈만, 알바로 로사노 차리와 함께 헌화참배 후 담소를 나누고 있다.

콜롬비아 참전용사 대통령 국빈 방한 맞춰 재방한

코로나 이후 첫 참전용사 방한 초청

양국 대통령 국빈만찬 참석 전쟁기념관 찾아 전우에 헌화

6·25전쟁 당시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전투부대로 참전한 콜롬비아 참전용사들이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국가보훈처 초청으로 방한했다.

이번에 초청된 참전용사는 길예르모 로드리게스 구즈만 콜롬비아 참전용사 장교회장과 알바로 로사노 차리 콜롬비아 참전협회 회장이며 이들은 가족과 동행인이 함께 대한민국을 찾았다.

특히 이번 초청은 코로나19 이후 지난해부터 유엔참전용사 재방한이 모두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콜롬비아 대통령의 국빈방한에 맞춰 이뤄져 더욱 의미가 깊었다.

참전용사들은 방한 기간 중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한·콜롬비아 참전용사들이 70년 만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한·콜롬비아 대통령의 국빈만찬에 특별 초청을 받아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방한 기간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보훈처에서 마련한 감사 오찬에 참석한 데 이어, 오후에는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참전 전우들을 위해 헌화하고 기념관을 둘러봤다.

양국 보훈 협력 MOU 체결
정책 개발, 후손 교류 등 포함

한편 국가보훈처와 콜롬비아 국방부는 2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양국 간의 보훈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협약에서 양국은 6·25전쟁으로 맺어진 혈맹을 바탕으로 국제보훈 및 제대군인 지원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는 △국제보훈 분야 정책개발 △제대군인 지원 분야 정책개발 △6·25참전용사와 제대군인 예우 행사 개발 △6·25참전용사 후손 교류 증진 △6·25참전용사 단체 활동 개발 등이 포함됐다.

양해각서는 양국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주한 콜롬비아 대사가 서명했고, 콜롬비아 국방부 장관은 일정상 현지에서 지난 19일에 서명을 완료했다.

콜롬비아는 6·25전쟁 당시 연인원 5,100명이 참전해 흑운토령 전투, 금성 진격전, 불모고지 전투 등에 크게 기여했으며, 전투 과정에서 213명이 전사했고, 448명이 부상을 입었다.

참전국에 한국 아름다움 알린다
보훈처·문체부 업무 협약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유엔참전국에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엔참전용사에게 전통문화 무료 체험 등을 통해 감사를 전하고, 한복 등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림으로써 미래세대까지 한국과의 인연이 계승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엔참전용사와 후손 방한 행사, 유엔참전국 현지 위로·감사 행사 등 때마다 전통문화 알리기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향후 참전국과의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국제보훈정책과 전통문화 홍보에 대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한다

보훈처·LH 협약 체결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와 국가유공자 등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다양한 주거사업과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독립유공자와 후손 대상 특화주택 공급 △취약주택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 긴급·수시지원 △다양한 맞춤형 주거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12일 황기철 보훈처장과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은 내년 3·1절을 계기로 서울 지역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입주할 수 있는 특화주택을 시범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협약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247명 포상

정부는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1919년 충남 천안에서 광부들의 만세시위를 이끈 박창신 선생과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남으로 미국에서 대를 이어 독립운동에 앞장 선 안필립 선생 등 247명에게 독립유공자 포상을 실시했다.

이번에 포상받은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65명(애국장 12명, 애족장 53명), 건국포장 30명, 대통령 표창 152명으로, 이번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으며 여성은 14명이다.

이번 포상에는 일제강점기 국내 최대 금광 중 하나인 충남 천안군 직산 금광회사 고용인으로, 동료들을 설득해 만세시위 계획을 세우고, 1919년 3월 28일 광부 200여 명을 인솔해 천안 입장 시장까지 시위행진을 벌이다 체포된 박창신 선생,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학생독립운동에 주동자로 참여해 퇴학 처분을 받은 최심 선생, 3·1운동 1주년을 앞두고 전북 고창군 면사무소에 태극문양과 '대한독립'을 쓴 깃발을 세운 이종철 선생 등이 포함됐다.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찾아 '감사와 위문'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광복절을 앞둔 지난달 4일과 11일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전했다.

황 처장은 지난달 4일 서울시 송파구 김영관(97) 애국지사의 자택을 방문해 대통령 위문품과 함께 김영관 지사의 모습을 본 따 만든 정밀모형 피규어를 전달하고 환담을 나눴다. 피규어에는 생존 애국지사의 삶과 그분의 뜻을 기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달 4일 황기철 보훈처장이 김영관 애국지사의 자택을 방문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어 황 처장은 11일 울산지역의 3·1운동을 주도했던 독립유공자 고 김장수 지사의 자녀 김영숙(89)씨 자택을 방문해 위문품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올해 위탁병원 18개 신규 지정, 6개 교체

연말까지 100개 확대 예정
진료과목 다양화도 추진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00개소의 위탁병원을 확대한데 이어 올해에도 상반기 18개의 위탁병원을 신규 지정하고 계약 종료된 6개소를 교체 계약했다(명단 별표, 2021년 8월 1일 기준).

보훈처는 보훈대상자들이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접 진료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320개의 위탁병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3년간의 위탁병원 확대 작업이 모두 끝나면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탁병원은 640소로 늘어난다.

보훈처는 지정 확대 외에도 진료과목의 다양화, 과잉·과다 의료이용 방지를 위한 위탁병원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의 위탁병원 현황은 각 지방 보훈관서로 문의하거나 국가보훈처 누리집(예우보상/지원안내/의료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	병원명	전화번호
강원도 홍천군	서울정형외과의원(홍천)	033)432-0129
강원도 강릉시	위드내과의원	033)641-9222
경기도 부천시	부천우리병원 (교체)	032)672-4100
경기도 시흥시	참사랑신경외과의원	031)435-7582
경기도 평택시	로뎀나무내과의원	031)654-1905
경남 밀양시	밀양선비뇨기과의원	055)352-7512
경북 경산시	파티마연합속내과의원	053)852-7500
대구시 남구	서부영남내과의원	053-656-7533
대구시 동구	대동에스정형외과의원	053)943-2621
대구시 북구	경대수내과의원	053)326-0099
대구시 서구	서내과의원	053)556-4509
서울시 관악구	손장원정형외과의원	02)872-3900
서울시 동작구	강남가드비뇨기과의	02)566-8330
서울시 동작구	성모정형외과의원 (교체)	02)817-7714
서울시 동작구	세명내과의원 (교체)	02)825-1065
서울시 서초구	예루살렘정형외과의원	02)575-0123
서울시 중랑구	강북21세기병원 (교체)	1577-6336
세종시	서울아산내과의원	044)862-7559
전남 신안군	압해연합의원	061)271-7583
충남 공주시	공주서울내과의원	041)853-7582
충남 당진시	성모정형외과의원	041)363-2111
충북 영동군	노상필내과의원	043)770-7171
충북 청주시	의)라온의료재단오창호수병원(교체)	043)214-1004
충북 청주시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교체)	043)267-0301

독립운동 영상 통화 연결 영상 V컬러링으로 제공

국가보훈처는 지난 한 달간 에스케이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독립기념관(관장 한시준)과 함께 공동기획·제작한 독립운동 관련 5편의 '통화연결 영상(V컬러링)' 콘텐츠를 제공했다.

V컬러링은 전화를 건 상대방에게 통화가 연결되기 전까지 미리 설정해둔 영상을 보여주는 서비스로, 기존 컬러링의 영상 버전이다.

이번에 제작된 독립운동 관련 5편의 V컬러링 콘텐츠는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편 △대한독립만세:광복의 의미 전달 편 △김구 선생의 명언 등 독립운동가 메시지 3편 등이다.

또한 보훈처는 11월 말까지 미국, 중국, 일본 등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방문(예전에 방문했던 사진이나 영상 포함)과 관련해 직접 제작한 영상을 응모한 사람 중 150명을 추첨해 기념품을 증정하고 3편을 V컬러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벤트 응모는 독립기념관 누리집(i815.or.kr) 참고.

연합국과 함께한 독립운동 독립기념관 특별기획전

올해 일제 만주침략 90년과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과 중국이 함께 침략에 맞서 싸운 역사를 살펴보는 특별기획전시가 독립기념관 특별기획전시실 Ⅱ (제7관)에서 열리고 있다.

독립기념관(관장 한시준)은 11월 21일까지 열리는 전시회 '연합국과 함께한 독립운동: 한중 공동 항전'를 통해 20세기 전반기 일제의 침략을 받았던 두 나라가 일제를 공동의 적으로 여기고 상호 협력하며 함께 싸우며 어려움을 이겨낸 역사를 기억하고 되새겨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특별기획전에서는 '김구 인장'을 비롯해 안병무가 중국군 동료들에게 받은 수첩, 한중 대조 기본전투 교련구령 규정표 등을 포함한 60점의 자료와 한국광복군 회고 인터뷰 등 자료를 만날 수 있다.

나라사랑 narasarang shinmun
발행일 2021년 9월 1일
발행처 국가보훈처 발행인 황기철
대표전화(정책·민원·상담) 1577-0606
편집·배포 044)868-0746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국가보훈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창간 1963년 9월 19일 누리집 www.narasarang.kr
기사 중 큐알코드를 통해 동영상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와 민족에서 출발하되 세계를 향하고 … 존엄한 삶 품고 '번영의 한반도' 지향해야

보훈, 미래를 위한 제언 ⑨ 통일시대를 향한 보훈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남북관계와 통일 여론

광복 76돌을 보낸 이 시각, 한반도 통일의 시계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총성이 그친 1953년 7월 27일을 기준으로 볼 때 2021년 8월 지금은 몇 시인가? 12시가 통일이라고 한다면 6시는 넘어섰는가?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전문기관의 통계를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통일에 대한 지지도는 50%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2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통일의 첫 번째 이유로 거론되던 민족 재결합에 대한 응답치도 줄어들었다. 대신 전쟁위험 제거와 같은 평화의 가치가 높아졌고,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어 한국의 선진국화라는 응답도 보인다. 한편 미래 통일의 주역이 될 청년층의 통일 지지도는 30%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현상은 통일이 집단(민족이나 국가)에 줄 편익과 개인에 줄 편익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다양한 통일과 관련한 여론이 시사하는 바를 한 마디로 요약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기존의 집단주의적 통일론의 정당성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는 데 비해 평화, 인권, 인도주의 등 보편가치와 나의 미래와 같은 실용주의적 시각이 높아지는 추세는 뚜렷해지고 있다. 또 보건·기후위기와 같은 세계적 문제들과 통일 문제를 별개로 생각해온 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성도 귀 기울일 만하다.

남북관계는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는 일종의 '규칙성'을 띠고 있는데 지금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는 전문가들도 쉽게 합의하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판문점, 평양,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후 시범적이나마 합의 이행 노력도 해보았지만 결국 큰 진전 없이 핵 문제로 대화가 중단되고 말았다. 전쟁을 거친 장기간의 불신이 단기간의 협력 노력을 쉽게 덮어버리는 형국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통일을 내다보며 보훈을 더 멀리, 더 넓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글 싣는 순서〉

1. 평화를 향하는 보훈
2. 독립-호국-민주의 이해와 가치
3. 국가유공자, 정체성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4. 국제보훈, 보훈의 새 지평
5. 보훈과 복지
6. 보훈과 여성
7. 보훈과 공공의료
8. 보훈과 문화
9. **통일시대를 향한 보훈**
10. 보훈의 미래가치

남북의 보훈제도 비교

남북은 통일을 숙명으로 안고 있는 분단체제를 구성하면서 그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립과 협력을 거듭해왔다. 여기서 '통일을 향한 보훈'은 남북이 체제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일 한반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논의하는 의미가 있다. 그 중 남한이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보훈제도는 모든 나라에 존재한다. 보훈은 그 나라의 존재 자체와 이념 수호, 국민 보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사람들과 그 가족에 대한 위훈과 보상, 그리고 제반 선양사업을 일컫는다. 그러나 서로 적대했던 국가들 사이의 보훈제도는 상호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국가들 사이의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냉전시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사이의 대립이 대표적인 큰 예이다. 또 이념 대립과 관계없이 과거 영국과 독일, 독일과 프랑스, 현 남북 사이프러스, 한중일 사이에서도 각각의 보훈정책에는 상호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남북의 보훈제도에는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통일 보훈정책을 설계할 때 계승할 부분과 지양할 부분이 공존한다. 공통점은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위훈과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비롯해 상대를 적대시하며 군사 활동을 하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통일 보훈을 고려할 때 논외로 미뤄놓을 수밖에 없다. 물론 통일 보훈제도를 논하더라도 분단이 지속되는 한 남북 각각의 기존 보훈제도는 지속될 것이다.

남북의 보훈제도에는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통일 보훈정책을 설계할 때 계승할 부분과 지양할 부분이 공존해

분단시대의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교육을 지속해나가되, 통일시대의 방향에 부응하지만 그동안 소외받아온 희생자들에 주목해야

그러나 계승할 만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경우 민주화 운동 희생자와 국민 생명 보호에 힘쓰다 희생된 사람들, 북한의 경우 체육·예술·과학자들이 해당하는 '공로자'들은 계승을 검토할 만하다. 물론 이 경우도 남북 간 체제의 차이로 인한 이념적 성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통일 한반도의 통합과 보편가치를 염두에 둔다면 서로가 함께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승'과 '지양' 사이에서 보다 깊은 토의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독립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보훈이다. 남한은 최근 들어 독립유공자들을 폭넓게 보훈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아직 이념적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이다. 반면 북한의 경우는 김일성 주도의 항일빨치산운동 참가자로 보훈대상을 분명히 한정하고 있다.

만약 남한이 광의의 보훈제도를 적용해 북한의 보훈대상을 포함시킨다면, 그리고 북한이 기존의 한계를 넘혀 남한의 입장으로 수렴한다면 그 자체가 통일 보훈의 첫 번째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국가보훈기본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에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로 통일 보훈의 1차 대상으로 삼을 가치가 크다. 이 부분은 통일을 우리 민족의 과제로 생각한다면 피해갈 수 없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통일 보훈제도의 방향

사실 통일 보훈제도의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현재의 의견은 하나의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으며, 현실적으로 공론화할 내용이 되기도 어렵다. 우리에게 다가올 통일이 어떤 모양일 것인지에 따라 통일 보훈제도의 내용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 하지만 통일 한반도를 대비한다면 그에 걸맞은 보훈제도의 기본적인 방향만큼은 지금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일시대 보훈제도의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시대를 규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우리 헌법을 적용한다면, 통일은 평화통일의 방식이며 민주주의의 구현과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라는 방향을 띠게 된다. 이는 평화가 통일의 수단 및 절차(소극적 평화)이자 동시에 그 목표(적극적 평화)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우리 국민의 통일 여론과 지구촌의 여러 가지 '실존적 위기' 상황을 감안한다면 통일은 '민족 재결합'은 물론 '국민의 존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구상해 나가야 한다.

오늘날 지구촌은 기존의 고질적인 지역 분쟁 외에도 식량, 보건, 기후,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지구 자체와 인류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상황은 또 우리 국민의 통일여론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이념과 집단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통일관은 냉전시대와 가부장제 사회, 그리고 성장 중심주의 시기에서는 통용되어 왔는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민주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향의 통일관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것은 바로 평화주의와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이런 대안적인 통일관도 포용한다. 그래서 한반도는 세계에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민주주의를 더 깊고 더 넓게 발전시켜가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는 것이다.

통일 보훈제도의 범위

이런 상황에서 통일 보훈제도를 그려본다면 분단시대의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교육을 지속해나가되, 통일시대의 방향에 부응하지만 그동안 소외받아온 희생자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7·4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이 합의한 통일 3원칙(자주·평화·민족대단결)에 부합하면서 통일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남북이 공동으로 선양하는 것도 통일시대 보훈제도의 큰 걸음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회 각 방면에서 대화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보훈교육·문화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엔 헌장의 정신을 구현하려다 이역만리에서 희생당한 우리 국민, 그리고 비무장지대(DMZ)에서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다 지뢰 피해를 본 남북 공동사업단원 등 인류의 보편가치 속에서 예우할 만한 희생을 보훈의 틀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통일을 향한 보훈은 국가와 민족에서 출발하되 세계를 향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품어 안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과정에서 '통일 시계'도 점점 더 튼튼한 심장으로 달려 '번영의 한반도'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내용은 국가보훈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기획 :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 보훈교육연구원

심리재활집중센터(서울 여의도) 심신안정과 악몽대처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심리재활집중센터에서 트라우마의 후유증, 악몽을 반복적으로 겪으시거나, 여러 스트레스에 힐링이 필요하신 보훈가족을 위해 특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신청 및 문의 바랍니다.

* 서울 여의도 소재 국가보훈처 심리재활집중센터 방문 가능하신 분 접수 가능
* 개인 및 집단 프로그램 진행 가능

1. **트라우마 심신안정 프로그램 "트라우마 쓰다듬기"**
   대상 : 트라우마가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전쟁 참여나 특수 훈련 등)
2. **악몽 완화 프로그램 "악몽, 이젠 안녕"**
   대상 : 계속 반복되는 특정 악몽에 지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3. **스트레스 힐링 프로그램 "행복공작소"**
   대상 :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힐링을 원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 **일정** : 10. 5.(화) ~ 11. 30.(금) 오전 10:00 ~ 11:30
*세부 일정은 변동 가능
■ **장소** : 서울 여의도 KT타워 13층(여의도역 2번 출구, 전경련회관 옆)
■ **신청 및 문의** : 02-786-7937 (비용은 일체 무료)

전국 보훈가족 마음나눔터 프로그램

마음나눔터에서는 다양한 심리적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보훈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분들은 다음의 프로그램을 신청해주세요.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국가보훈대상자
■ **장소** : 전국 마음나눔터 상담실
■ **프로그램**
- **개인상담** : 우울, 불면, 분노, 불안, 관계갈등, 트라우마, 사별과 애도 등의 심리적 문제에 대해 1:1 심리상담(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화상 상담 가능)
- **집단상담** : 심리적 안녕감과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해 삶의 다양한 영역을 주제로 집단프로그램 진행(트라우마, 스트레스 관리, 감정 조절, 대인관계, 힐링, 명상, 음악·미술치료, 원예·공예 등) *지청마다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청에 문의해주세요.
- **심리검사** : 정서 및 대인관계, 수면 등 현재의 심리상태에 대한 검사

■ **비용** : **무료**
■ **신청 및 문의** : 전국 마음나눔터 연락처
서울(02-786-7937), 부산(051-660-6284), 대전(042-280-1163),
대구(053-230-6159), 광주(062-975-6706), 인천(032-588-4176)

천안함 재단에 1,000만원 기부
취약계층 방역마스크 기부
상이군경회 사회공헌 활동 활발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장 유을상)가 지난 7월 26일 취약계층에 방역마스크 200만 장을 지원한 데 이어 27일에는 천안함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상이군경회는 지난 7월 '천안함 46용사'인 고 정종율 해군상사의 유자녀가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여의게 됐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그의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27일 천안함재단에 1,000만원을 지정 기부했다.

기부금은 천안함재단을 통해 현재 고등학생인 정종율 해군상사의 유자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상이군경회는 26일 국가수호를 위해 앞장섰던 단체라는 자부심으로 국가적 재난사태를 맞아 사회적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KF94 방역마스크 200만장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전국 6개 보훈병원 입원환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등에 전달했다. 〈사진〉 이번 마스크 기부는 지난해 12월에 110만장을 기부한 데이어 두 번째다.

상이군경회원 5명, 도쿄패럴림픽대회 참가

상이군경회



2020도쿄패럴림픽대회를 앞둔 상이군경회 회원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장 유을상)는 지난달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2020도쿄패럴림픽대회(장애인올림픽대회) 선수단 출정식에 참석한 상이군경회 회원을 특별 격려했다.

이번 패럴림픽대회에 출전하는 상이군경회 선수는 4개 종목 선수 3명이며, 선수단으로 임원 2명이 함께 참여한다.

유을상 회장은 선수단에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기력 향상을 위해 땀 흘리며 훈련해온 선수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전한다. 최선의 기량으로 개인과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여 주기를 기원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격려금을 전달했다.

한편 상이군경회는 지난 7월 28일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장애인올림픽 참가선수단의 철저한 코로나 예방을 위해 방역마스크 5만1,000장을 기부했다.

독도지킴이 행사 "독도 일본 영토 표기 철회하라"

특수임무유공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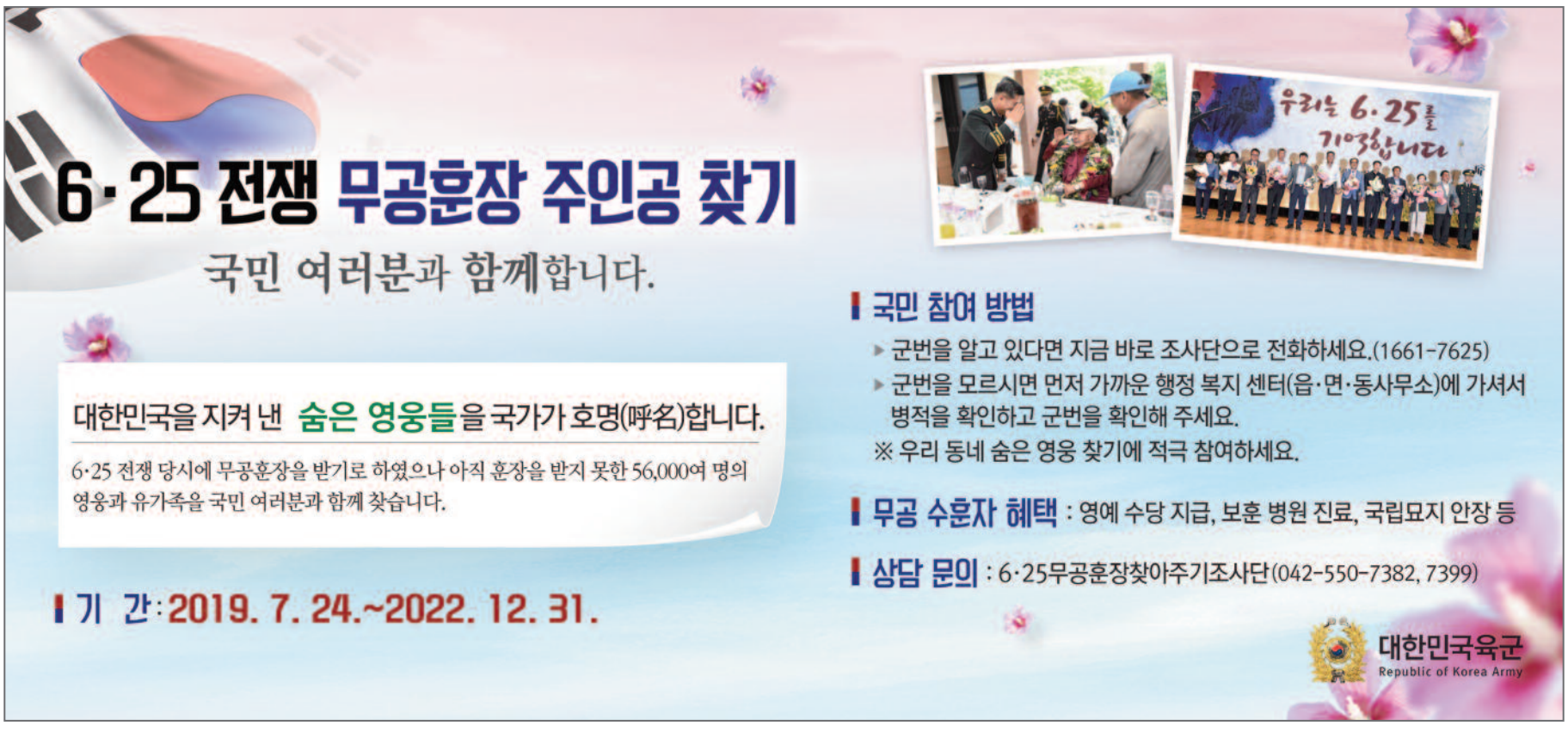


지난달 15일 독도에서 열린 독도지킴이 행사에서 특임 회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회장 이종열)는 광복절을 맞아 지난달 14~16일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서 제15회 독도지킴이 행사를 개최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왜곡 등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은 초등학교 교과서와 올림픽 홍보지도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것을 즉각 철회하고, 우리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주장하고, "우리의 주권을 노리는 일본의 야욕을 전 인류에 고발하고 목숨을 바쳐 독도를 지킬 것"을 다짐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 올리버 알 애비슨·로버트 그리어슨·스탠리 에이치 마틴 선생

우리민족의 독립운동을 도운 의료선교사들


올리버 알 애비슨


로버트 그리어슨


스탠리 에이치 마틴

1892년 의료선교사로 부임한 애비슨 선생은 제중원 원장을 맡았다. 선생은 1919년 3월 일본 고위 관리들에게 우리 민족의 정당한 요구를 대변하고, 3·1운동의 실상과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자 노력했다. 또한 3·1운동 부상자들을 적극 보호하고 치료했다. 선생은 은퇴 후 1942년부터 미국에서 기독교인친한회에서 임시정부 승인과 독립운동 지원을 호소하는 활동을 했다.

1901년 함경북도 성진에 선교지부와 진료소를 설치하고 선교활동을 시작한 그리어슨 선생은 1908년 국권회복운동을 하던 이동휘 선생을 후원했고, 1919년 성진 지역의 3·1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도왔다.

1916년부터 중국 길림성 용정 제창병원 원장으로 의료선교를 펼쳤던 마틴 선생은 1919년 지역의 3·1운동을 적극 도왔으며, 1920년 간도참변 현장을 방문해 사진을 촬영하고 '노루바위(장암동) 학살사건' 보고서를 만들어 일본군의 만행을 폭로했다.

정부는 1968년 로버트 그리어슨 선생과 스탠리 에이치 마틴 선생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각각 추서하고, 1952년 올리버 알 애비슨 선생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서훈했다.

이달의 6·25전쟁영웅 홍창원 육군 중위 (1932.2.3.~1952.9.7.)

목숨 바쳐 수도고지를 지켜내다



이달의 6·25전쟁영웅에 홍창원 육군 중위가 선정됐다.

수도고지 전투는 국군 제2군단 예하의 수도사단이 1952년 7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중동부 전선인 강원도 금성군 원덕면과 임남면에 위치한 수도고지와 지형능선 일대에서 중국군 제12군 예하 제31사단과 제35사단과 벌인 고지쟁탈전이다.

홍창원 중위는 수도사단 제26연대 5중대 1소대장으로 참전해 수도고지 방어를 위해 소대원들을 독려하며 선두에서 중국군과 맞섰다. 통신과 퇴로가 두절되고 압도적인 적 규모에 이기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홍창원 중위는 자신과 부대의 희생을 각오하고 신호탄을 쏘아 올려 자신들의 진지를 포격할 것을 요청했다. 그와 소대원들의 살신성인은 수도고지를 사수하는 기폭제가 됐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52년 10월 31일 충무무공훈장, 1954년 10월 25일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했다.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기

독립운동가로 대한광복회 총사령을 지낸 고헌 박상진 의사의 순국 100주기 추모식이 지난달 11일 오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사진〉

박상진의사순국100주년기념사업회(공동대표 류복수, 이경림)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모식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기념사업회 대표와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상진 의사 업적조명, 추모공연 등이 이어졌다.

추모식 이후 오후 7시에는 박상진 의사 생가에서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기 추모 제례가 열렸다.

항일여성독립운동가 문화제 영상으로 대체 공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여성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제7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기념식이 지난달 15일 영상으로 대체 공개됐다.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김희선) 주관으로 제작된 이번 영상에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추모문화제 공모전(UCC·초상화·일러스트·공공조형물디자인·독백·랩 등) 당선작도 함께 공개됐다.

추모문화제 영상은 유튜브에서 '항일여성TV'를 검색하면 볼 수 있다.

6·25참전자 부상 입증 제보자를 찾습니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찾습니다. 아래의 참전자들과 활동을 함께 했거나 기억하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 고 김창석 님(1927.8.14.생)



○ **군 복무 내용**
- 1949.7.20. 공군 입대, 1953.11.25. 의원전역(중사)
- 제1항공교육대 복무 중 1952.8.10.~1953.3.5.까지 공군병원서 공상으로 입원치료

○ **부상 경위**
- 낙동강전투 중 오른쪽 종아리에 총상을 입음

■ 고 백록기 님(1929.8.25.생)



○ **군 복무 내용**
- 1951.11.19. 육군 입대, 1953.2.22. 의병전역(일병)
- 9사단 30연대에서 복무 중 1952.11.9.부터 36병원서 입원치료

○ **부상 경위**
- 6·25전쟁 전투 중 허리 부상 입음, 결핵 발병했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역함

■ 고 최길윤 님(1933.11.10.생)



○ **군 복무 내용**
- 1950.8.27. 육군 입대, 1951.12.3. 의병전역(일병)
- UN 24사단 7연대 복무 중 1951.3.6.부터 15병원, 27병원, 7병원서 입원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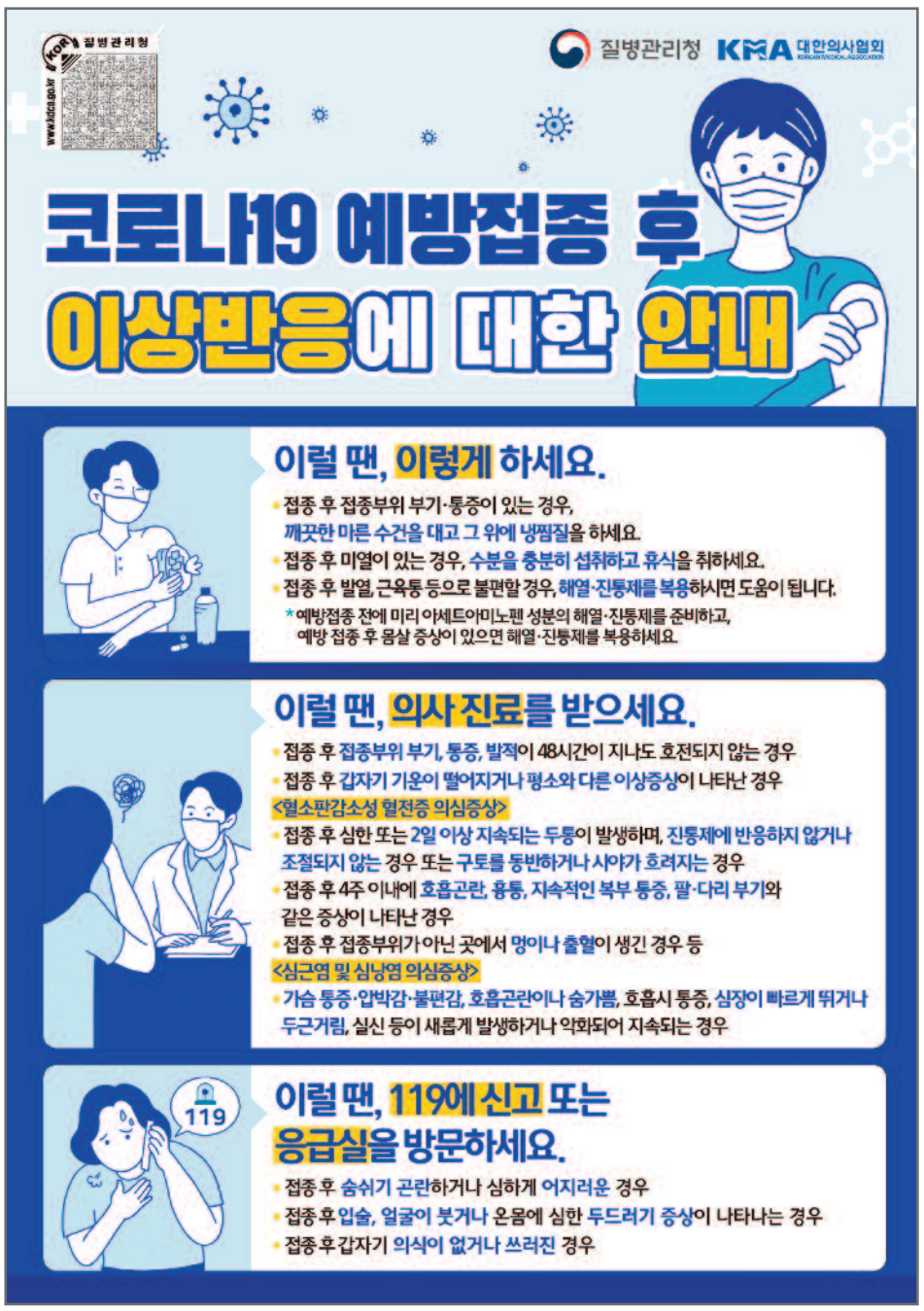
○ **부상 경위**
- 구만리전투 중 총포탄 파편에 흉상과 한쪽 눈이 실명

■ 필요한 제보 내용
- 부상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지휘관이나 동료, 부하 등 진술
- 부상 부위를 직접 치료한 군의관 등 의료업무 종사자 진술
- 같은 병상 입원환자 등으로서 치료 장면 등을 직접 목격한 분 진술
- 고인으로부터 부상사실을 들었거나, 관련 사실이나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 등 진술

■ 연락처 : 보훈심사위원회 044)202-5831~3, 5955

아름다운 인생







커버스토리 **경북 안동 체화정**

마음 깊어 아름다운 날

단단한 속 내보이듯
세월 이겨낸 익숙한 얼굴
그리고 말갛게 씻어낸 오늘

다시 침묵처럼
가슴 뛰는 시간이 온다

마음 깊을수록 더 아름다운 날
다시 손을 잡는다 우리
여기 활짝 하늘이 열린다

함께하는 **생활체조**

물통을 활용한 상체 스트레칭

이번에는 주변에 흔히 구할 수 있는 물통을 활용해 실내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립니다. 기사 큐알코드를 통해 'TV나라사랑'에서 영상을 보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물을 반쯤 채운 플라스틱 물통 2개를 준비합니다. 이 동작은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 일어서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점은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물통 잡고 손목 좌우로 돌리기

양 손으로 물통 하나를 잡을 때 엄지손가락은 위로 나머지 손가락은 깍지를 끼듯 합니다. 팔을 정면을 향해 일자로 쭉 뻗은 다음, 물통을 왼쪽, 오른쪽 번갈아가며 90도로 끝까지 쭉 돌립니다. 이때 머리나 허리가 기울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팔목과 팔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최대한으로 돌려주고, 수월하게 느껴지면 물을 가득 채워서 동작을 따라하면 됩니다.



물통 잡고 손목 아래위로 올리기

양손으로 물통 하나를 가로로 잡고 양팔을 쭉 뻗습니다. 팔이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 다음, 손목을 위아래로 천천히 올렸다 내립니다.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고, 물통을 올릴 때는 팔꿈치를 굽히거나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물통 잡고 팔 돌리기

양손에 물통을 한 개씩 총 두 개를 듭니다. 정면을 향해 물통을 든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양팔로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돌립니다. 이때 팔꿈치가 접히지 않아야 하고, 물통을 잡은 손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양 어깨와 팔 근육의 자극을 느끼면서 동작을 따라하고, 자극이 너무 크면 물양을 줄이면 됩니다.



물통 들어 하늘로 팔 뻗기

양손에 물통을 한 개씩 잡고 양 옆으로 팔을 뻗은 다음 팔꿈치를 90도로 굽혀서 물통이 하늘로 향하게 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펴서 하늘로 팔을 쭉 폈다가 굽히기를 반복합니다. 천천히 왼쪽, 오른쪽 번갈아가며 동작을 반복하세요.

법률 상담

보험금수령과 상속

Q 과거, 남편이 생명보험계약에서 배우자인 저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이 많은데 보험금을 수령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보험금청구권 자체는 보험계약자의 생존 중에도 그 재산으로부터 이탈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금수령인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남편이 가입한 생명보험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 고유재산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132

보훈 상담

외부병원 전원 시 진료비

Q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훈병원 진료여건상 진료가 곤란한 중증질환과 특수질환 또는 특수시설·장비를 갖춘 전문의료 시설에서 진료가 필요한 환자(전상군경 등 국비진료환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장의 승인에 따라 외부 전문위탁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병원 전원시 진료비의 국고부담 범위는 급여 및 법정 비급여 진료비입니다. 단 상급병실료, 치과보철료, 보훈병원장이 지원불가 항목으로 지정한 진료비와 진료를 의뢰한 질병 이외에 발생한 진료비는 제외됩니다.

다만 상급병실료의 경우 본인 부담이 원칙이나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특별병실 제외)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사용한 상급병실료는 일부 국가 부담 범위에 해당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한방으로 **채우는 건강**

견과류로 오늘도 건강하게

우리가 즐겨먹는 호두, 잣, 땅콩, 은행 등 견과류에는 풍부한 불포화지방산이 들어있어 혈관과 피부를 기름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로 건강을 지켜내봅시다.

호두는 뇌의 모양과 닮았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두뇌발달과 기억력 증진,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호두에는 구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리는 뼈를 튼튼하게 해줘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아몬드에는 비교적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아몬드에는 바나나의 6배 정도의 식이섬유가 있어 변비 및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해 불면증 개선에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건포도는 설탕을 첨가하지 않았지만 단맛이 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 건포도는 관절염을 예방하고 골밀도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인이나 성장기 어린아이들에게도 특히 좋습니다. 건포도에 있는 철분은 빈혈을 예방합니다.

땅콩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은 고혈압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혈관을 청소해 줌으로써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또 피를 만들어 내는 엽산의 함량도 아몬드의 2배, 호두의 4배나 됩니다. 땅콩도 건포도와 마찬가지로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 '해송자'라 불리는 잣은 입맛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고 야윈 사람에게 좋은 음식으로 오래 전부터 애용돼 왔습니다. 특히 잣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변비와 만성피로를 느끼는 사람에 좋습니다. 다른 견과류보다 비타민E가 풍부해 피부를 윤기있고 매끄럽게 해 피부노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과하면 독이 되는 견과류

기억해야할 것은 견과류는 대부분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대략 30g 정도가 가장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하게 먹으면 변비나 소화 장애, 체중 증가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지방산이 들어있어 갈색으로 변하는 산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래될수록 유해물질이 증가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꺼운 껍질을 가지고 있는 호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견과류는 알러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땅콩 알러지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밖에 피스타치오나 캐슈넛 등도 알러지가 있으므로 먹고 나서 두드러기, 가려움, 붓기 등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면 바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잘 알고 적당히 먹으면 한 줌의 견과류는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줍니다. 견과류의 장점을 통해 한 뼘 더 건강한 일상을 즐기세요.

김성수 부산보훈병원 한의과 부장, 한의학박사, drwaje@bohun.or.kr

박물관&미술관

인류는 어떻게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까



'제1부 진화'의 화석들. 원시인류에서 현생인류까지, 유구한 인류사를 한 자리에서 관망할 수 있다.

호모 사피엔스 : 진화∞ 관계& 미래?

26일까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호모 사피엔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으며, 지금 코로나로 흔들리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오늘을 이겨나갈 것인가.

최근 전 지구적 규모의 코로나19 상황으로 호모 사피엔스,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700만 년 전 휘청거리며 초원을 걷기 시작했던 우리는 산업화를 거쳐 이제 신에 비견될 만큼 전능한 존재로 거듭났다. 물론 많은 한계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신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진보'가 거듭돼야 할 것이며,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이후에는 그만큼의 엄청난 댓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신이 되지 못한 인간과 신의 역할을 하게 될 호모 사피엔스는 또 어떻게 관계를 지어가며 이 지구별을 누비게 될 것인가.

하지만 지금은 다시 코로나19라는 대충돌을 만나 인간이 여전히 미약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고민을 함께할 현장이 바로 서울 용산구의 국립중앙박물관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700만 년이라는 긴 인류 진화의 여정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기획특별전을 마련했다. '호모 사피엔스 : 진화∞ 관계& 미래?'가 전시회 이름이다.

진화적 관점에서 본 인간 존재의 의미와 진화 과정에서 맺어 온 다양한 생물종과의 관계를 찾는 자리이다. 이야기는 화석 자료, 고고 자료 등 700여 점의 전시품과 영상으로 풀어나간다.





전시는 프롤로그 : 진화를 이해하는 방식, 제1부 진화, 제2부 지혜로운 인간 호모 사피엔스, 에필로그 :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로 이어진다.

첫 번째 이야기, 프롤로그. 인류의 기원에 대한 물음을 종교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가져온 '종의 기원' 이야기가 다뤄진다. 진화에 대한 편견과 인식의 한계를 볼 수 있는 '필트다운인 사건'이 소개되고 3D 모션 캡처 촬영 등 첨단 기법으로 제작한 실감형 콘텐츠 '700만 년 동안의 기억'이 상영된다.

두 번째 이야기, 진화.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부터 호모 사피엔스까지 700만 년에 걸친 인류 진화과정을 그린다. 극심한 환경변화 속에서 인류가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최근 유전자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호모 사피엔스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한다. 루시, 네안데르탈인, 샤니다르인 등 유명한 고인류 화석 발견 사례를 전시한다.

세 번째 이야기, 지혜로운 인간 호모 사피엔스. 현생인류 호모 사피엔스의 특징을 예술, 장례, 도구, 언어와 기호, 탐험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로 살펴본다. 프랑스 쇼베와 라스코 등의 동굴벽화 자료, 사자인간, 비너스 등의 조각품, 눈금을 새긴 돌 등 주요 전시품과 자료를 기반으로 호모 사피엔스를 깊이 이해하도록 한다. 도구 영역에서는 세계 구석기의 기술체계와 한반도 구석기의 특징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모든 생물종이 그물처럼 엮여 있는 지구에서 종의 다양성과 공생의 가치를 지향하는 실감형 콘텐츠 '함께하는 여정'은 대단히 유익한 체험이 될 것이다.

마지막 이야기, 에필로그. 지구상에 생명이 탄생한 이래 5차례의 대멸종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50~75%의 생물종이 사라졌다. 오늘 지구는 인간의 탐욕이 초래한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기후 변화 등은 6번째 대멸종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과 위치를 자각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진다.

9월 26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계속될 이번 전시는 올해 12월 국립중앙과학관, 내년 4월 전곡선사박물관에서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국가유공자 본인 무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매 필수. 예매 문의 02-1688-0361.

한마디

▶ 나도 시골에서 어울려 살고 있다. 도시에서 생활하다 다시 시골로 오니 사람들이 훨씬 가까워졌다. 집집의 살림 사는 소리가 돌담을 넘어온다. 아울러 인심도 넘어온다. 물론 나도 인심을 살일도 절로 생각하게 된다. 구순의 할머니는 내일 아침에도 나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풀을 뽑거나 호박잎과 콩잎을 따거나 흰 꽃이 지고 있는 깨밭에 나와 계실 것이다. 그러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문태준 시인, '중앙일보' 칼럼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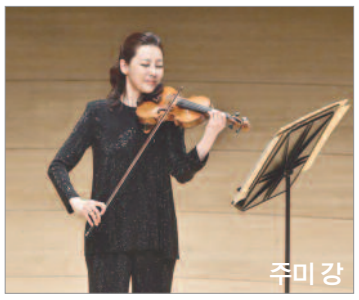
문화 공연

성큼 다가온 가을, 클래식으로 특별한 낭만을



대전시향의 2018년 서울특별연주회 모습. 열연을 마친 연주자들을 향한 박수갈채가 들리는 듯하다.

공공시설의 배경음악, 통화연결음 등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소소한 곳곳에 클래식 음악이 녹아들어 있다. 고전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사랑받으며 이제는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클래식 음악. 다가오는 가을, 가슴 가득 낭만을 전해줄 클래식 공연이 우리를 기다린다.



주미 강



김선욱

 # '클라라 주미 강&김선욱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9월 12일 오후 5시, 14일 오후 7시 반, 15일 오후 7시 반

바이올린과 피아노 두 연주자가 긴밀하게 호흡하는 특징이 강조된 대표적인 바이올린-피아노 듀오 레파토리에 흠뻑 빠져보자.

1798년에서 1812년 사이 작곡된 10곡의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이 관객을 맞이한다. 하이든, 모차르트와 같이 초기 고전시대의 기틀 안에서 비상하는 소나타 1번부터 청년 베토벤의 싱그러운 활력을 담은 소나타 5번 '봄', 청력상실로 인한 혼돈의 시기에 탄생한 소나타 7번, 화려하고 극적인 음악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소나타 9번 '크로이처', 명상적인 분위기 속 초월의 세계를 품고 있는 최후의 소나타 10번까지, 제각기 다른 개성의 소나타 곡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국제적인 경력을 쌓으며 흠잡을 데 없는 우아함과 균형감을 갖춘 바이올리니스트로 평가받는 클라라 주미 강과 함께 '눈부시게 아름답게 연주된 숭고한 음악이 담긴 음반'이라는 찬사를 받은 김선욱이 피아노를 맡아 천상의 호흡을 선보인다.

문의 예술의전당(02-580-1300).

 # 대전시립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9 '가을의 서정과 브람스'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 9월 10일 오후 7시 30분

1984년 창단한 대전시립교향악단이 뛰어난 기량과 매력적인 레퍼토리, 신선한 기획을 통해 클래식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마스터즈 시리즈의 가을 맞이 프로그램이 관객을 맞이한다.

이번 공연은 서정성을 한껏 담은 클래식 곡들로 가을 밤의 낭만을 수놓을 예정이며,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몰다우', 드보르지크의 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번, 마지막으로 브람스의 교향곡 제4번 마단조 작품 98번으로 채워졌다.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독일 울름 시립극장과 울름 시립교향악단과 독일 트리어 시립극장과 시립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이자 음악총감독으로 활동했던 지중배 지휘자가 지휘를 맡았다. 플로브디프 콩쿠르, 비보 콩쿠르 등 수많은 세계 콩쿠르 대회에 입상했고, 현재 영국 왕립음악원에서 요셉 크라우치와 바로크 첼로를 연주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정현 첼로이스트가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

문의 대전시립교향악단(042-270-8382~8).

 # 남성 비올리스트 네 명의 만남 '포 비올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9월 18일 오후 8시

국제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한국인 현악사중주단으로서 이례적인 행보를 걷고 있는 현악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 '아벨 콰르텟'의 전·현직 비올리스트 네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승원과 김규현, 김세준과 문서현 등 오랜 현악사중주 활동으로 다져진 실내악 장인들의 내공이 담긴 다섯 곡의 비올라 사중주와 두 곡의 비올라 이중주 프로그램이 새로운 음악경험을 안겨다 준다.

이번 공연은 바흐의 파르티타 2번 중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 곡 중 하나인 샤콘느를 비올라 4대 버전으로 편곡한 곡으로 그 시작을 열고, 이어 두 대의 비올라를 위한 녹스의 '9개 손가락', 브리지의 '비가', 바인치엘의 '야상곡'으로 1부를 마무리한다. 2부는 퍼셀, 녹스, 보웬의 곡을 차례로 비올라로 도전해 탁월한 앙상블 감각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예술의전당(02-580-1300).

여기 이 책

▶ 우리는 돌, 나무, 흙 같은 자연 속의 재료를 가지고 건축물을 만든다. 그리고 그 건축물이 부산물로 만들어내는 빈 공간 안에서 생활한다. 그 공간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면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그 공간은 또 다시 우리를 만든다. 이처럼 건축물을 만든 사람은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공간을 통해서 다른 시대의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유현준, 을유문화사)

생각 나누기

새로운 삶의 여정

우리들은 진정으로 이와 같은 죽음과 소멸의 길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육신은 태어났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육신은 태어났다가 죽는 것일까요. 그것은 태어나는 것은 좋아하고, 죽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다면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과학은 육신의 근본이 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육신의 근본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들이 '육신은 태어나고 죽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비약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은 본래 태어나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것이 따로 있고, 죽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어남은 자신만으로는 아무런 의미와 뜻도 없으며, 스스로 있지 못하고 죽음으로 인하여 있을 수 있으므로 태어남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태어남은 없는 것인가. 태어남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남은 스스로 없을 수 없으며, 죽음이 없을 때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남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 또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듯 태어남과 죽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둘로 나뉘어 있지 않고 서로 융합 융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이 서로 융합하는 것을 마음 또는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육신이라는 이름이 곧 이 마음이고, 육신을 구성하는 의미와 육신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뜻이 곧 이 마음이며, 육신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이 곧 이 마음이고, 육신의 그다운 역할과 작용의 비물질이 바로 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마음은 깨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태어나 젊고 건강한 육신은 좋아해서 더욱 젊고 건강하며 오랫동안 보전하기를 원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육신은 싫어해서 이를 버리고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좋은 육신을 취하려는 욕망은 한이 없어서 끝내 좋아하는 젊고 건강한 육신을 취하지 못하는 고통에 떨어지고, 늙고 병들어 죽는 육신을 버리려는 욕망 또한 한이 없으므로 끝내 버리지 못하는 고통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고 병든 육신을 싫어해서 버리려 하지 않으면 늙고 병든 육신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며, 젊고 건강한 육신을 좋아해서 취하려 하지 않으면 젊고 건강한 육신이 본래부터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참된 육신입니다.

성현들도 '태어나서 젊고 건강하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소멸과 이를 바라보는 것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생각이 오직 이 마음'이라는 것을 깨치고 일체의 모든 고통을 벗어나 대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마음을 깨달아 영원히 무너짐이 없는 참된 육신과 행복을 찾아가는 새로운 삶의 여정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강제훈 월남전참전유공자이며 현재 경북 안동에서 글을 쓰면서 마음수련을 하며 지내고 있다.

이달의 나라사랑 영상 콘텐츠

전쟁가요 메들리



전우의 손녀, 미스트롯 마리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수많은 참전용사들을 기억하며 부릅니다. 전선야곡, 녹 슬은 기찻길, 한 많은 대동강, 전쟁가요 메들리.

보고싶다 전우야



1970년에 파월, 해병대 215기 2802부대 수송중대에서 근무했던 정지태 전우가 해병대 파병 동기 김광식 전우를 찾습니다. 50년 세월동안의 그리움으로 기다립니다. 전우야, 보고싶다!

생존 애국지사 초상화 특별전



지난 8월 10일부터 29일까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는 제76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며 생존 애국지사 초상화 및 피규어 특별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상 전시회를 통해 만나보세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대통령 특사단



지난 8월 14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대통령 특사단은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시러 카자흐스탄에 다녀왔습니다. 서울공항 출발부터 현지 추모식, 유해 봉송까지 특사단의 하루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낱말 맞추기

빈칸에 답을 채운 후 본인의 주소, 원하는 상품, 전화번호(필수, 상품 택배 발송용)와 함께 매월 20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 또는 아래 큐알코드를 통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매월 6명을 추첨해 건강식품(5명), 보청기(1명)를 보내드립니다.

주소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신문
E-mail edit@narasarang.kr **Fax** 044)866-6771


정관장 홍삼원(5명)



버나폰보청기(1명)
보훈보청기(02-749-7995) 제공

■지난호(915호) 정답과 당첨자

보청기 △대전 중구 이종철
건강식품 △서울 은평구 윤지중 △대구 동구 이우국 △충남 서산시 이찬숙 △경남 창원시 김화일 △경북 청도군 정성건

해	바	라	기	
수			온	달
욕		해		그
장	뇌	삼		림
	물		모	자

가로
1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천○○비' 계절, 가을입니다.
3 어르신 또는 연장자의 생일을 높여 이르는 말.
4 대표적인 추석 음식.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 찌는 떡. 송○.
6 '엄마야 ○○야 강변살자'. 손위의 여자 형제.
8 작은 밥상. 소○. 보통 다리 모양에 따라 개다리 '소○', 호족반, 마족반, 죽절반 등으로 부릅니다.

세로
2 고무로 만든 신. 검정색이 가장 흔하고, 흰색은 여성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3 미리 녹화하고 편집한 방송이 아니라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송.
5 손을 깨끗하게 씻으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문지르면 거품이 납니다. 비○.
7 동서남북 방향을 알려주는 도구. 나○○.
8 짠 맛이 나는 흰 색의 첨가물. 반찬이나 국의 간을 맞출 때 씁니다.

■916호 문제

1	2		5	
			6	7
3				
			8	
4				